

보도시점 2026. 5. 3.(일) 17:00 배포 2026. 5. 3.(일) 16:30

## 한중일 역내 경제 현안 공유, 지역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위한 3국 협력 촉구

- 구윤철 부총리,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
- 중동 전쟁의 경제 영향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 방안 논의
- 글로벌 불확실성 하 역내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위한 3국간 협력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였다.

한중일 회의는 한·중·일 3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이다. 동 회의는 한중일 재무부가 매년 번갈아 의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다.

먼저 3국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거시경제 영향과 각국이 추진 중인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작년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국 경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1분기까지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지만, 최근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구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중동 전쟁이라는 당면한 불확실성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구조적 도전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세안+3 금융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제고와 역내 감시기구인 AMRO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총 2,400억불 규모,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분담비율 16%))

한중일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역내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 제30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개최될 일본 나고야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변재만 (byun221@korea.kr)
			사무관	피재원 (jwphi@korea.kr)
			사무관	신소연 (shinsoyeon@korea.kr)

